【 해외금융 뉴스: 유럽 】

중국, 스페인 국채 매입 · 경제협력 약속

- 스페인은 2011년 중 만기 도래로 차환할 국채발행 규모가 유럽 전체 국채발행 규모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스페인의 국채차환 성공 여부가 유럽 금융시장의 정상화에 큰 변수로 대두됨.
 - Natixis는 2011년 중 유럽 각국이 발행할 국채 규모는 8,240억 유로이며 스페인은 이중에서 20%에 해당하는 1,700억 유로로 예상함.
 - 스페인의 국채발행이 실패할 경우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의 구제금융은 그리스·아일랜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규모로서 현재의 유럽 구제금융 기금 대부분을 소진하면서 유럽 금융시장 안정을 크게 해칠 것으로 보임.
- 스페인의 국채발행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은 1월 5일 스페인에 대한 대규모 경제협력과 스페인 국채 매입 의사를 밝힘으로써 유럽의 금융시장 안정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임.
 - 중국은 스페인과 에너지, 금융, 통신, 운송, 농업 등 16개 분야에서 56억유로 (75억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협력 계약을 체결함.
 - 중국의 시노펙(Sinopec) 석유·가스공사는 스페인의 렘솔YPF 석유회사가 보유한 브라질 자산을 71억달러에 인수키로 함.
 - 그외에 스페인의 와인(600만달러), 육류(1,350만달러), 햄(26만달러), 올리브유(900만달러), 항공통제시스템(2,500만달러) 등을 수입하는 협정을 맺음.
 - 현재 스페인 국채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스페인 금융시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언급함.
 - 중국의 스페인 경제협력 및 국채매입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유로화 강세 유지를 통한 대유럽 수출 호조세 지속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한 동조세력 구축, 유럽의 덤핑국가 규제 탈피, 유럽의 대중국 무기수출 허용 등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9년 현재 중국의 대유럽 수·출입은 각각 145억유로, 20억유로로서 유럽은 중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자리 매김 했으나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중국의 대유럽 수출은 크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임.

(Financial Times 1/5, WSJ 1/5)